

## ☆ RE: 제목없음

^ 보낸사람 최남회 &lt;cnh665@naver.com&gt;

받는사람 김경량 최남회

2025년 8월 12일 (화) 오전 6:53

이미 많이 늦었어요.  
어차피 긴 글 안 읽을 꺼니까 변호사 선임하세요.  
이제 좋게 헤어지는건 힘들겠지만 그래도 잘 끝내고 싶네요.  
누나는 장문쓰면 항상 읽기 싫어하잖아요.  
아래글 어차피 다 안 읽을꺼니까 답장은 왜 바래는지 모르겠네요.  
누나가 읽던 말든 그냥 내 생각의 아주 일부만 적을게요.  
난 4월 12일날로 그대로 멈춰 있어요.  
이제 더이상 같이 살고 싶지 않아요.  
변호사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더이상 이 지옥같은 결혼생활을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항상 싸우면 난 누나 때릴까봐 도망쳐 나오면 일주일 있다가 들어가도 누나만 풀리면 풀린것처럼 생활해야 하는 마음의 짐은 풀리지 않은 채 살아가야 하는 저에 대해 조금이라도 생각해본적 있어요?그게 결국 또다른 싸움의 나의 결격이 되면서 정신과 간 부분, 다 나의 잘못처럼 말하는 누나는 이제 질려요.  
난 아무것도 풀리지 않고 다시 살아야 해요.  
이제 그러고 싶지 않아요.  
길게 말하면 안돼고 20개개 하면 안돼고,정리해서 말해야 하는 저의 고통은 조금이라도 생각해본적 있어요?  
술먹으면 이혼하겠다 협박듣는 내마음은 생각해 본 적있어요?  
술끓는건 결혼하면서 전부터 생각한 내지였고,누나가 기여한거 하나도 없어요.술끓여야하는 이유는 술먹는 이유를 알면 그게 해소될거 같아서 끓으려고 했고 그건 외로움이고 누나랑 대화하면서 풀어질거라 생각했어요.  
술은 나쁘다는 말만 했지.나의 외로움이나 내가 할말을 누나는 하나도 듣지 않았어요.  
다시 술먹고 싶었고,누나랑은 말을 안하게 됐고,어쩌다 한번 지인들 모임 가면 말하고 싶어서 술 조금 먹었어요.  
근데요. 그것도 누나 싫어할까봐 결혼전보다 1/10도 안먹는건데 그걸로 협박 말을 계속 누나로부터 들어야 했어요.  
더이상 술 입방곳만 하면 이혼하겠다 협박한건 누나이면서 이제 와서 싫다고요?  
그때 난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아요?  
이런말 들으며 내가 그렇게 잘못된건가?  
4월12일 짐 싸고 나오면서 이혼 그렇게 원했는데 이제 와서 원하지 않는 다고요?그날은 1층에서 비 많이 내리는데 이혼 언제 할꺼냐고 5월 초에 하자고 내가 말했더니 너무 늦는다고 4월에 하고 싶다고 한건 누나였어요.근데 이제 와서 싫다고요?여의가 없어요.  
항상 거의 싸움은 누나가 만들고,난 항상 침묵하거나 분노가 폭발해도 눈 깜짝 안하는 누나보면 이제 지치고 더이상 그러기 싫어요.  
내 외로움,나의 책임감,회사의 힘든 일을 이해 못하고 항상 하나님 기도만 하라는 누나의 대답,누난 나의 고통을 하나도 풀어주지 못하고 긴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고,나의 감정은 생각 안하고 해결방식만 찾는 누나의 방식.나는 항상 나쁜 분노조절장애,극강T.아스퍼거증후군,성인ADHD 들어야하고 이걸 모든 사람에게 할거처럼 취급하는 누나의 생각도 질려요.  
누나에게만 이런 모습들이 다 나와요.  
누나는 부부상담 가자 해도 안가고,결혼전 지인들 제대로 보려고 하지도 않았고,용인에 가까이 사는 내 고딩 친구조차 한번 본적 있어요?  
누나가 피해 코스프레 하면서 나에게 감정 호소 하는것도 이제 듣기 싫어요.  
더이상 서로 힘들게 하지 말고 이혼 잘 끝났으면 좋겠어요.  
변호사 선임하고 준비하세요.  
더 이상 이런식의 답장은 없을거예요.  
마지막 내가 보낸 메일처럼 잘 지내시길 바래요.  
4년동안 나랑 살아줘서 고마웠어요

---Original Message---

From: "김경량" &lt;rangdodo@naver.com&gt;

To: "최남회" &lt;cnh665@naver.com&gt;;

Cc:

Sent: 2025-08-11 (월) 20:45:47 (GMT+09:00)

Subject: 제목없음

내가 임신에 내려 가있는 동안 조용해서  
소송을 취하한줄 알았는데 아니란걸 알았어.  
뒤늦게야 송장을 받아보고 억울했고 몇날며칠 잠못자고 고통속에 눈물로 시간을 보냈어.

나는 가정을 지킬것이고 좋을때도 나쁠때도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처음의 약속을 지킬꺼야. 세번이나 하나님께 맹세했으니까.

니가 끝내 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계속 법대로 가겠다면

너는 이혼을 하기위해서 없는 귀책사유를 거짓으로 만들어야 할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라는걸 기억했으면 좋겠어.

나는 니가 암으로 죽을까봐 너에게 좋다는거 해먹이고 배달한번 안시키고 화장품, 사치품 한번 사본적도 없고....신혼때 약속한것처럼 해외도 나갔다 왔고, 그 더운날 베트남 열악한 환경에서 힘들게 요리하고 너에게 매일 온갖 좋은 향암음식 만들어 먹였는데....전립선암, 대장암 아슬아슬하게 비켜간거는 하나님의 은혜라는걸 절대 잊어서는 안돼. 지금 너가 원망만 하고 소송까지 걸다니....배신감이 이루말할수 없고 마음이 무척 고통스럽구나ㅠㅠ. 서로 버리지말자고 약속해 놓고서...나는 니가 아플때 널 버리지않았어. 너는 나와 쿠키가 아플때 우릴 버리고 소송을 거는게...설마....니 진심은 아니겠지...

되돌릴수 있는 기일이 얼마 안남았어.이제라도 소송을 취하하기를 바래. 안그러면 나도 이번주에 변호사를 고용해야하니까. 다시말하지만 나는 원치않아.

서로 원망하고 이간질하는 변호사들에게 속지 말기를바래.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보렴. 지난5년간 하나님은혜로 가장 좋은것들을 받았잖아. 하나님앞에 서로 죄짓지말고 힘들더라도 믿음의 가정을 같이 지켜가자.

베드로같은 최남회. 이른 새벽 기도하러가고 감사할게 많다고 말하던 내남편아. 다시 현명한 선택을 하길 기다릴께. 수요일까지 답장부탁해.